

돌아온 'MAGA' 트럼프... 국익 기반 실용외교 대비 필요

尹정부, 외교안보 대응은

비개입주의 강화, 동맹변화 예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논란 재점화
북핵 정책, 핵동결 카드 주목
한미일 삼각공조 변화 불가피

'Make America Great Again.' 줄이면 MAGA로,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슬로건이다. 그만큼 'MAGA'에 진심인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국익을 우선하며, 이는 외교·안보 정책이 일방주의와 비개입주의(혹은 고립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의미기도 하다. 이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가치 외교'에 주력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이나 외교가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방주의와 비개입주의에 대비해 국익 기반 실용외교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대북 정책의 변화나, 한미일 삼각공조나 중국과의 관계에도 변화도 있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AP/뉴시스

그간 한미 양국은 공조를 통해 미 전략자산 전개 등 북핵 억제력을 강화시키는 데 노력해왔다. 그렇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한반도 비핵화'와는 결이 다른 정책을 펼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가 미국 본토를 공격하지 않는 정도라면 관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기에 더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등 '핵 동결'을 대가

로 제재 완화 카드를 내밀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럴 경우 북한은 더욱 더 '통미봉남'을 택할 수 있다.

또 국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관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영토에 대한 공격이 발생할 때, 미국이 한국을 지킬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이다. 만일 이 부분에서 미국과 한국

의 생각이 다르다면, '자체 핵무장'을 언급하는 주장이 힘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대통령실은 대북 정책에 대한 변화를 예상하면서도, 정확한 전망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으로 대북 정책의 방향식도 복잡해진 상태다. 실제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전화 통화에서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 중인 북한 군 사동향에 대해 상황을 평가하고, 긴박한 전환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신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는 없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별개로, 방위비분담금도 한미 갈등의 요소 가운데 하나다. 최근 방위비분담금 협정(SMA)이 끝났고, 협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에 방위비분담금을 100억 달러(약 14조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 재임 당시에도 이를 여러 차례 올리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예측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

는 지난 6일 "한미간 SMA는 이미 완료한 상태고, 국회 비준을 위해 국무회의 절차를 마쳤다. 이는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양국간의 합의를 만들어 놓는 것"이라며 "그것이 미국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충분히 협의한 결과로서 기준점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협정이 비준을 받은 상황이면, 향후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를 하더라도 변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일 협력과 중국과의 관계도 역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이 경우 한미일 삼각공조를 통해 중국을 견제했던 기존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며, 한국 정부에게 미국과 중국 등 한쪽을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많은 분들이 '윤 대통령과 트럼프가 케미가 맞을 것'이라고 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관세·방위비 분담금 협정 더 빨리 비준해야”

전문가가 분석한 트럼프2기

서정건·유명희 교수

“관세, 협상 레버리지로 사용할 것”

미국 정치·통상 전문가들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할 관세, 분담금, 무역적자를 언급하며 한국이 민관 차원에서 정보 공유를 통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유명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국 대선 합의와 과제 세미나'에서 강연을 통해 미 대선이 주는 의미와 우리의 대응방안 등을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연구단체 '국가혁신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왼쪽)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연구단체 '국가혁신전략포럼'에서 주최한 '미국 대선과 합의와 과제 세미나'에서 강연하는 모습. /박태홍 기자

전략포럼'에서 주최했고 윤상현·안철수·김기웅·최순진 국민의힘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를 협상의 레버리지로 사용

할 것이라며 국회도 비준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는 관세와 분담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관세는 자기 맘대로 올릴 수 있고 내릴 수도 있다"며 "관세를 올려서 중국과 경쟁에서 이기고 바꾸는 척 관

세를 내리는 걸 하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에 주한미군 방위비를 8.3% 올리고 국회가 계속 요구했던 방위비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라는 데 성공했다. 국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같은 내용의 방위비 분담 협정을 더 빨리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가 만약 방위비 분담을 더 늘려달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회에서 이미 비준했다고 주장하거나, 캠프 험프리스 같은 세계 최대 미군 기지를 지어줬는데 미국이 더 보상을 내라고 하든지 미국 무기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하든지 트럼프 주변인들이 트럼프를 압박하고 회유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중후반 2년간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던 유명희 교수는 미국이 급증한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유 교수는 트럼프가 관세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관세가 ▲통상정책 수단 ▲협상의 레버리지 ▲제조업 부흥책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유 교수는 "우리가 동맹이라고 해서, FTA를 맺었다고 해서 일방적 관세 정책에 해당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안이한 것이다. 철저한 협상의 시간이 왔다"고 부연했다.

유 교수는 정부 차원의 대응에 대해 "우리가 미국의 최우선 순위는 아니지만, 무역수지 적자국은 분명하고 적자 폭은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며 "협상의 핵심은 항상 자동차였다. 자동차 대미 수출이 늘었고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늘었다.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통상현안에 대한 사전관리와 대응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부동산 개발업자서 美 대통령으로 두 번의 탄핵 소추에도 백악관 탈환

도널드 트럼프가 걸어온 길

美 우선주의 앞세워 대통령 당선 권력남용·폭동선동 등 논란 가득
인종차별 발언·인신공격 일삼아

미국 47대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백악관으로 재입성했다.

그는 부동산 개발업자에서 미국 대통령으로, 그리고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걸어왔다. 그의 인생은 끊임없는 논란과 성공으로 가득 차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1946년 6월 14일 뉴욕 퀸즈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는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자

였으며 주부이자 자선사업가였던 메리 애니의 3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트럼프는 어린 시절부터 부동산 사업에 관심을 가졌다. 뉴욕 군사 아카데미를 졸업한 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에서 경제학 학위를 받았다.

트럼프는 1971년 아버지의 회사를 인수하여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으로 이름을 바꾸고, 호텔, 카지노, 골프장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파산의 위기도 겪는다. 2004년 트럼프 호텔 카지노, 2009년 트럼프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가 파산하기도 했다.

1946년	6월14일 뉴욕 퀸즈 출생
1964년	뉴욕군사학교 졸업
1968년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경제학 학사
1983년	뉴욕 랜드마크 트럼프 타워 완공
2004년	리얼리티 '어프렌티스' 쇼 출연 대중적 인기
2005년	모델 출신 멜라니아와 세 번째 결혼
2016년	공화당 후보 출마, 45대 미국 대통령 당선
2017년	대통령·취임, 美 우선주의 정책 추진
2020년	대통령 재선 실패
2024년	공화당 후보지명, 7월 유세중 총격
2024년	11월06일 47대 미국 대통령 당선

그는 방송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도 참여했다. 1996년 미스 유니버스 조직회를 인수해 매년 미스 USA와 미스 유

니버스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는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4년 NBC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를 진행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어프렌티스는 도널드 트럼프의 회사 중 하나의 경영권을 놓고 경쟁하는 리얼리티쇼 프로그램이다.

정치 경력이 전혀 없던 트럼프는 2016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공약을 내세워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여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의 첫 임기 동안,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시행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재협상했다. 또한, 그는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멕시코 국경

에 장벽을 세워 불법이민을 막았다.

그러나 트럼프의 임기는 논란으로 가득했다. 그는 미 역사상 두 번 탄핵 소추된 유일한 대통령으로 기록을 남겼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로, 두 번째는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진행되었다. 두 번 모두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4년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는 여러 차례 막말 논란에 휘말렸다. 그는 경쟁자인 카말라 해리스와 니키 헤일리를 향해 인종차별적 발언과 인신공격을 일삼았다. 특히, 해리스의 이름을 잘못 발음하거나 그녀의 지능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여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최준호 기자 ch9720@